

## 영화를 통해서 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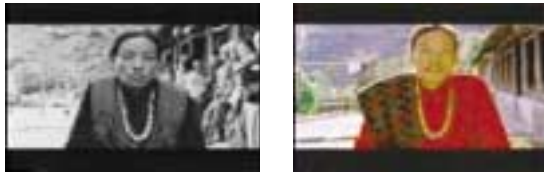
글 · 김희철

###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Never Ending Peace And Love)〉

2003, 박찬욱,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단편영화 올니버스 〈여섯 개의 시선〉의 6번째 작품

1999년,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 구롱은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는다.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결국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 ■ 영화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방식 색감



#### 시점 쇼트 point-of-view shot(POV)

이 영화는 찬드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주인공의 내레이션을 이용하여 1인칭 시점을 구사하는 것과는 달리, 90% 이상의 쇼트를 찬드라의 '시점 쇼트'로 처리하여 찬드라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시점 쇼트는 극중 인물의 시점으로 촬영된 쇼트로 카메라의 렌즈가 등장인물의 눈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인물이 보고 있는 대상을 보여주게 된다. 시점 쇼트는 주관적 카메라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관객이 극중 인물의 주관적인 심리에 동일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찬드라가 느꼈던 고통, 공포심 등을 간접 체험하게 한다.

####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실제 인물)의 혼합



연구자의 인터뷰

실제 인물의 인터뷰

자신들의 실수를 드러내기 꺼리는 사람들(경찰, 공무원, 의사)의 인터뷰는 사전취재 후 배우의 연기로 대체하였다.

#### ■ 외국인 노동자 문제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이 바로 흔히들 말하는 이주 노동자,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적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임금체불이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빈번한 산업재해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과다한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데서 받는 스트레스는 작업장 내 다른 한국인보다 훨씬 더하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또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손으로 음식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며 비웃고, 술을 억지로 먹이고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등 문화적 차이를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 ■ 활동지 작성

- 흑백 화면(처음부터 후반부 고향 사람과의 만남 장면까지)과 칼라 화면(후반부 히말라야 산맥 장면부터 끝까지)의 느낌은 각각 어떠한가요?
- 감독이 흑백, 칼라의 구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도는 무엇이였을까요?

## 세상을 움직이는 힘, '3의 법칙'

글 · 유진선



서울 번화가 한복판. 한 남자가 허공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지나가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조금 뒤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번에도 대부분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더니, 금세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서 하늘을 가리키고, 무슨 일이라며 웅성거린다. 사실 세 사람이 가리킨 하늘에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촬영팀과 미리 약속한대로 행동했던 연기자들이었다.

이 실험은 '소수의 용기있는 행동에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세 사람의 같은 행동이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 사람, 두 사람일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세 사람부터는 달랐다. 의미있는 변화(tipping point)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3의 법칙'이라 한다.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짐바르도 교수는 '3의 법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명이 모이면 그 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이 집단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이 되고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세 명의 행동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전체의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견고한 현실의 벽 앞에서 '3의 법칙'을 기억하자. 나와 뜻을 함께 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그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 토론 주제

1. 각자 자신의 주변에서 '3의 법칙'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3의 법칙'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단순히 양적인 다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이를 때까지 앞장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와 덕목은 무엇일까요?

#### ■ 관련 명구

사려 깊고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왔습니다. - 마거릿 미드

〈독자마당〉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 활용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여, 선정된 작품 2개를 담았습니다.